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사람사랑” 2호에서 6호는 사랑방의 초기 문제의식을 담았던 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글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방의 사업과 역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④

*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가?

‘00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많은 경우 (아주 못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유령단체’이다. 우리는 슬프게도 이 ‘유령단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공대위’가 ‘유령단체’가 되는 원인은 대개 그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려는 단위 즉 튼튼한 실무력이 없기 때문일 텐데, 이유야 어떻든 각 단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인력과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리하여 ‘공대위’라는 시도에 대한 냉소가 우리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 “각자의 영역에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어린 탄식이 새어 나오게 된다.

이 공대위가 ‘유령단체’가 되기 쉬운 우리의 현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몇몇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의된 인권운동연합 결성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연합, 즉 ‘원초적 종합운동’에서 역사적 필연에 의해 부문분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이루어져야 할 ‘의식적 종합운동’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권운동연합이 거대한 ‘유령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본부, 즉 실무력이 있어야 하고 그 존재를 담보해 주는 재원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권운동 각 단체간의 최소한의 애정과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 각 단체의 한계를 함께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편집자주-이글은 현재의 ‘한국인권운동단체협의회’가 탄생되기 전에 씌어졌다).

함께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여러 단체

의 연합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자, 법조인, 활동가(그리고 시민)가 인권운동가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결합은 있다. 아무개 변호사는 무슨 단체의 공동의장, 아무개 교수는 무슨 단체 인권위원 하는 식으로, 그리고 아무개 변호사는 공안사건을 무료변론하고 아무개 교수는 후원금을 내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기적 결합은 아니다. 아무개 교수는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이론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활동가와 적극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면서 세미나나 조사를 함께 함으로써 현실감각을 익혀야 하며,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인권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개 변호사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담당 그 자체를 인권운동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로서 자각해야 한다. 아무개 활동가로부터 현장감각을 공급받아야 하고 함께 사건추적을 해야 한다. 아무개 교수에게 살아있는 법의 모습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흡수하는 교수로부터 살아있는 이론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개 활동가는 아무개 교수, 변호사에게 현장감각을 제공하면서 자료와 이론적 전문성을 공급받아 현장활동을 더욱 세련시켜야 한다.

요컨대 그냥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⑤, ⑥ ‘변화를 예감하는 하나의 구상’이 이어집니다.

사업보고

(7월 둘째주~7월 마지막주)

□ 정기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1. 자료실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기로 함.
- 현재 국내 유일하게 준비되고 있는 인권 자료실을 보다 풍부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이 요구되는 바 금번 9월말이나 10월경 약 3,000만원 목표로 수익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8월 중순경까지 구체적 추진 계획과 자료실 종합발전 계획을 사무국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인권교재 발간을 위한 책임자 선정.
- 현재 약 30여가지로 뽑아놓은 인권교재 예상 주제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올해안에 적어도 3권이상을 출판하기 위해 사무국 담당 책임자는 물론 운영위원 책임자를 두기로 하고 이를 박노현 운영위원님(방통대 교수)이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3. 인권하루소식 모니터팀을 운영기로 함.
- 하루소식의 대외적인 평가를 경청하고 보다 나은 질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전 편집자,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지방통신원등으로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정기적인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하루소식 담당 운영위원으로는 김 당 운영위원님(시사저널 사회부 차장)이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4. 백승헌 운영위 간사 미국 서준식대표 면담기로.
- 백승헌 운영위 간사께서 휴가차 미국행 도중 서준식대표를 방문하여 사랑방의 향후 진로, 운영위원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사랑방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사무국원 합동으로 '사랑방이 계획한 것들 그리고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이란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 백승헌 간사님이 돌아오는 다음주 운영위원회는 이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5. 사무국원 1명을 충원기로 함.
- 현재 사무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여유정원 1명을 추가 충원기로 하였습니다.

습니다.

- 충원방식은 제 사회단체 기관지등에 공모하여 8월말경에 공식 채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위 논의 및 결정사항 중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소식 합본 4호 배포 중 □

- * 하루소식 합본 4호(301호~400호, 94년 12월 6일부터 95년 5월 11일까지 분)가 배포중입니다. 운영,자문위원 그리고 특별후원자분들께는 이미 배포되었고, 하루소식 독자들에게는 5천원 일반에게는 1만원에 판매중입니다.
- * 주위의 인권관련 사업에 종사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단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

- * 한국의 주요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협이 사업 2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민가협이 간사단체를 맡았던것을 이어 받아 올해 사랑방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사랑방은 간사단체를 맡은것을 계기로 인권협의 4개의 수임사업(회원단체간 사업의 조정과 협의, 인권교육, 인권자료의 축적, 국제연대의 강화)을 알차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제껏 부족했던 회원단체간의 사업 공유와 협의 조정 업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 * 아울러 상임 대표는 대표자회의의 호선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제1기 사회사업학과 전공 실습교육 성공리에 마쳐 □

- * 연세대 1명, 숭실대생 7명의 사회사업 전공실습 교육(4주간)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 * 실습생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하였다고 평가 했으며, 사랑방의 입장에서 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마련과 자료실 업무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권교육 및 실습지도에 약간의 경험,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

진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습생 대부분들도 교육 후에 이제껏 막연했던 '인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사회사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제2기 사회단체 연수 시작 □

* 서울대 법대학생회 6명의 지난 6월 제1기 사랑방 연수 프로그램(3일간)을 마친 이래 제2기로 이화여자대학 법학과 학생 6명의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들도 지난번 1기의 경험속에서 수정된 교육을 오전에 받고 오후에는 자료실 업무지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장기수 캠페인 시작 □

* 이미 하루소식에 연제되기 시작한것과 같이 이번 8.15를 맞이하여 인권하루소식은 현재 장기수들을 가두고 있는 철창의 의미는 무엇이고 감옥문은 왜 활짝열려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하루소식 독자들과 조금이나마 '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눠 보고자 이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 총 8회에 걸쳐 장기수들을 유형별로 재조명해 보고, 각 사건에 대한 추적과 가족들의 인터뷰, 당사자들의 편지등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샘플 입력 '실험회' 갖기로 □

*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쓰게 될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간 사무국은 약 2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실험을 거듭하였고 그중 가장 저희의 요구에 근접한 프로그램을 찾아 약 200여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실험을 위해 8월 12일 사랑방 자료실에서 실험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풍부하고 정확히 자료를 찾아주는가가 실험의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운영,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기조변경에 대한 논의 갖기로 □

* 현재 인권단체협의회가 준비중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11월 예정)이 주요 발제

예정자들의 참석이 어려워지고, 심포지움 중심으로만 행사를 치루는 것에 대한 참가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총체적인 중간점검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사랑방은 3박4일간의 심포지움을 단축시키고, 전후의 사업을 많이 배치하자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으로 전환해 국제 선전, 홍보전을 중심으로하자는 기획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 "45년 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캠페인" 공동주최단체로 참가 □

* 민가협의 제안으로 해방 50주년인 이번 8.15를 맞이하여 인권,시민,종교단체 공동으로 "대석방, 대사면, 대화합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8월 7일에서 12일까지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주최로 참가하는 단체는 모두 12개로 민가협, NCC 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등이며 그이외에 민변, 건약, 인의협, 제 사무직 노동조합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일정표

행사제목	일시	장소
하루감옥체험 하루단식	7일(월)-12일(토)	명동성당
양심수 석방 기원 예배	7일(월) 오후7시	기독교 회관
양심수 석방 기원 법회	8일(화) 오후7시	조계사 법당
전국교도소 양심수 면회 및 석방 촉구집회	9일(수)	전국 교도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9일(수) 오후6시 11일(금) 오후6시	명동성당
100회 목요집회	10일(목) 오후6시	명동성당
시민대회	12일(토) 오후6시	명동성당
양심수 석방 기원미사	13일(일)	명동성당
전시회 및 만화인 행사	7일(월)-13일(일)	명동성당 주변

자료소식

이번에는 <구금과 행형에 관한 일본어 자료 ②>을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여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獄窓の中の人権(감옥 안의 인권)

正木 亮/361/B/1968.11/Ja

행형의 역사(일본)와 수인의 상태.인권문제를 다룬 책이다. 40여년간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며, 특히, 다이쇼(大正) 5년(1915년)부터 감옥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재소자가 처해있는 환경,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느끼면서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행형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으며, 형무소와 수인의 생활, 자유형과 기본적 인권, 전쟁중의 囚人부대 파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犯罪捜査のすべてがわかる本(범죄수사의 모든 것을 아는 책)

若松芳也著/143/B/1992.7/Ja

와카마쓰(若松)변호사가 체포에서부터 조사, 기소까지 피의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만든 책이다. 일러스트 삽입되어 있다. 임의동행, 체포,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법, 구류, 신체검사, 구치생활, 피의자 취조, 취조에 대항하는 대책, 압수수색, 검사의 취조, 변호인과 관계, 기소,불기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것.

□ 警察犯罪を追いつめた11年堀川事件(경찰 범죄를 추격한 11년, 호리가와 사건)

寺村恒郎 等 著/182/B/1987.7/Ja

호리가와 사건은, 택시운전사 호리가와씨가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가공의 목격증인으로 내세워 유죄판결을 받아내려한 경찰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11년간 싸워 승리한 사건이다. 호리가와씨는 동경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고등법원에서 목격증인의 수수께끼를 풀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경찰관과 목격증인의 위증사실을 자백시키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사건시작에서 끝까지 경과와 기록들을 담았다.

□ へいの中の懲りない面々(담장안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면면, 담장안에서 일어난 일들) 安部譲二 著/254/B/1986.8/Ja

감옥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았다. 감옥의 문제를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토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으나, 사건중심으로 다루다보니 내용이 가깝다. 월간지 「室内」에 연재한 내용들이다.

□ 日本の 監獄-獄中處遇の 實態(일본의 감옥-옥중처우의 실태)

佐藤友之/538/B/1992.4/Ja

일본감옥의 재소자 처우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정리한 책. 매우 현장감 있고 밀도높은 분석이 돋보이며, 제일 한국인 손두팔씨 사건을 모두에 다루었고 각 사안에 대해서 실제 송송냈던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

□ 刑事辯護わかえる 當審弁護士制度(형사변호를 새로이 바꾸는 당심변호사제도)

일본변호사연합회/236/B/1992.12/Ja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당심변호사(국선) 실시 이후 보고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당심변호'의 실제와 내용,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기념자료집

□ 刑事辯護マニュアル(형사변호 매뉴얼)

형사변호연구회/308/B/1989.10/Ja

대용감옥에 의한 자백의 강요와 장시간 조사, 접견교통권의 제한, 부인사건의 경우 보석의 불허가, 변호인측 반증의 제한, 자백조사, 참고인 진술 등의 안이한 채용 등으로 일본의 형사절차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적절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인의 형사변호를 위한 모든 것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이다.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사람사랑” 2호에서 6호는 사랑방의 초기 문제의식을 담았던 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방의 사업과 역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⑤

- 변화를 예감하는 하나의 구상

우리 인권운동의 현실을 타개하고 인권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여러 인권단체를 수평적으로 관통하면서 여러 인권단체에 자료와 전문성, 그리고 활동 인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헌신적인 단위, 기존 단체의 ‘규정성’에서 자유로운 단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만들어지고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간 어떤 구상이 있다. 다만 이 구상은 재정 사정이나 인적 구성이 가능한 한도에서 아쉬운 대로 가장 시급한 부분적 사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기구는 1) 학자에 의해 지도되고 전담 실무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자료실, 2) 학자와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세미나에 참가하는 여러 연구분과, 3) 여러 인권운동단체와의 원활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대외협력부서와 조직부서 등을 포함한 사무국, 4) 그 조직부서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는 비상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팀들로 이루어진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법조인, 활동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권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종합을 이루어나간다.

2) 연구분과에서는 실천에 활용 가능한 인권이론의 개발에 힘쓰며,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여러 인권운동단체에 공급한다. 아울러 인권운동의 개념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사회변혁운동 속에서 인권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

3) 연구분과 내의 기획분과에서는 잇달아 일어나는 주요 인권사건을 검토하고, 그중에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입체적 분석을 즉각 시도함으로써 그 분석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인권·민주화운동 진영에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한다.

4) 자료실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인권관련자료를 수집·축적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관련 자료를 즉각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 자료는 각 인권운동단체에 대하여 늘 열려 있어야 한다.

5) 연구분과 내의 국제인권법 분과와 사무국은 세계의 주요 인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외국 인권단체와 항상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국내의 인권단체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민운동으로써 인권운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민 인권교실을 운영하며 그 교실을 매개로 비상근 시민 활동팀을 조직해 나간다. 직장인, 주부, 자유업자, 학생 등을 그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교육하여, 주요재판의 모니터, 특정사건에 대한 추적팀, 여러 인권단체의 지원팀으로 활동케 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인권운동의 저변을 확대시켜 인권운동 인자(활동가, 이론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도록 노력한다.

이 구상은 결코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논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있어야 하겠지만 아주 크지 않아도 성격만 뚜렷하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읽으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상들이 짧은 기간 현실로 나타난 것이 현재의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모든것이 아직도 시작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실릴 때 사랑방이 탄 배는 인권의 바다를 향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업 보 고

(8월 첫째주~8월 둘째주)

□ 정기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1. 8/19 사무국, 운영위 합동토론회 갖기로

- 당면 주요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교재 발간 기획, 자료실 종합발전 계획의 확정, 하루 소식 모니터팀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갖기로 함.

- 지난 7월초 사무국 실무체계를 실장단회의, 4실체제에서 2인 책임제, 하루소식팀과 그 이외 실무기획팀으로 변경해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갖기로 함.

2. 사랑방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회를 계속 진행

- 사무국에서 제출한 <사랑방이 한일, 하지 못한 일, 직면한 도전>에 기초해 사무국의 토론 결과와 서대표의 의견을 취합해 현재 여러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백승현 운영위 간사 미국 서준식대표 면담 결과 보고

-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사랑방 사업에 있어서 운영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

- 향후 제반 사업과 사랑방의 진로, 위상에 대한 더욱 많은 의견을 주고 받기로 함.

- 내년 3월에 있을 Colombia 대학 인권프로그램에 사무국원중 1인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함.

- 기타 미국에서의 생활, 공부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음.

4.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책임을 부과기로

- 자문위원중 회비를 미납한 분들에 대해 모집 운영위원의 책임하에 입금을 독려하기로 함.

☞ 운영위 논의 및 결정사항 중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하기휴가 실시중 □

* 올해부터 사무국의 하기 휴가를 정식화시켰습니다. 기간은 6일이고 업무의 지속을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협, 장기수 석방 촉구 가두 홍보전 □

* 8.15특별사면에 보다 많은 장기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운동 사랑방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권협 소속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8월 11일 정오부터 1시간30분동안 서울역광장에서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 8.15 특사,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선생 등

양심수 25명 석방 □

* '국민화합, 분단의 아픔치료'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해방 50주년 기념 경축 특별사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방은 사면이 발표된 11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기만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양심수 465명중 25명의 석방은 불과 5%에 불과하다.

- 장기수석방도 60세 이상 42명중 7명에 불과하고 30년이상 복역자 14명중 3명에 불과하다.

- 재일교포의 경우 보통 11년간량을 복역하면 석방해 주던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치에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이번에 석방되는 3명을 제외하고 일체의 감형조치에서 제외되었다.

- 특히, 노동운동, 사회운동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랑방 사무국 전원은 8월15일 45년 최장기수 김선명, 43년 복역 안학섭, 39년 복역 한장호씨가 석방되는 대전교도소 앞 출소 환영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 성공회대학, '인권과 평화' 강좌

사랑방 강사로 참가기로 □

* 성공회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교양필수로 '인권과 평화'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강좌중 4번의 강좌를 맡아 인권의 현실, 인권운동의 역할, 인권실습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 초,중,고 교과서 분석작업 개시 □

* 인권운동사랑방은 "언젠가는 정규교과과정에 '인권'이라는 과목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그 준비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인 김정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국민학교 도덕, 사회, 바른생활 등의 교과서에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

도 담겨 있으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규약'을 분석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잠정 확정 □

*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쓰게 될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해 그간 사무국은 약 2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실험을 거듭하였고, 그중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을 찾아 약 200여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험결과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당분간 쓰기에는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빠르고 더 많은 자료의 데이터 구축작업에 힘쓸 예정입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타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와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 9월 10일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 및 의견서(A4 용지 2매 분량)
- 인권단체 혹은 인권관련 사업 종사자 추천장(가능할 경우)
- 면접후 개별 통지 함.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715-9185)

7월결산(1일-31일)

수입

하루소식구독료	990,000
회비	350,000
지로입금(구독료, 회비 포함)	4,621,500
후원금	530,000
(이종걸 변호사 50만원, 오자와씨 3만원)	
인권교육(강사료, 실습비)	300,000
차입(사무국)	500,000
운위특별모금(휴가비지원)	800,000
MT회비	140,000
합본호판매	25,000
집세(김동한)	300,000
기타	273,100

합계 8,287,950 원

6월 이월금 -1,951,607 원

지출

활동비	3,360,000
휴가비	700,000
사업비	1,024,390
(합본3호 인쇄비 완불, 좌담회, 교육, 취재비)	
사무비	649,190
(복사비품, 문구)	
자료구입비	130,430
전화요금	363,760
우편발송비	394,920
인권협회비	250,000
집세	403,512
운위.사무국 MT	304,330
식대	314,970
잡비	123,600

합계 7,939,102원

잔액

-1,602,759 원

*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회비 적립 못함. * 합본4호 인쇄비 120만원 미결제.

* 8월 8일 현재 잔액은 -1,054,999원.

<7월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아직 미납하신 분께서는 회원통신과 함께 발송된 지로를 이용,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회비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운영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자 료 소 식

이번호에는 유엔 인권센터에서 유엔세계인권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세계 인권캠페인을 위한 fact sheet 시리즈(총 21권)중 주요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시면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Methods of Combating Torture/Fact Sheet No.4(고문에 대항하는 방법)

UN/29쪽/P/1992/EN

고문과 관련한 유엔의 조약과 기구에 대한 설명, 고문피해자원호기금에 대한 소개 등이 실림.

☐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Global Consultation held at Geneva from 3 to 6 October 1988; a Summary/Fact Sheet No. 5(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전후 40년간의 행동프로그램-88년 10월3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관한 세계회의의 내용 요약)

UN/17쪽/P/1992/EN

민족우월감과 인종차별에 대한 유엔의 창립 이후 40년간의 행동계획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유엔인권선언 4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 요약본.

☐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Fact Sheet No.6(강제 또는 강요된 실종)

UN/14쪽/P/1989/EN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실종,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사례를 실음.

☐ Communications Procedures/Fact Sheet No.7(통보 절차)

UN/19쪽/P/1992/EN

1503절차를 비롯, 유엔의 인권과 관련된 기구들의 통보절차에 대한 설명.

☐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Fact Sheet No.9(선주민의 권리)

UN/17쪽/P/1990/EN

유엔 선주민권리위원회의 창립과정과 선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

☐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Fact Sheet No.11(비사법적 처형)

UN/11쪽/P/1990/EN

비사법적인 처형에 대한 현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정리서.

☐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Fact Sheet No.12(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27쪽/P/1991/EN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과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Fact Sheet No.13(국제 인권법과 인권)

UN/19쪽/P/1991/EN

유엔에서 채택되고 발효된 조약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서.

☐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Fact Sheet No.14(현대 노예의 형태)

UN/14쪽/P/1992/EN

인신매매, 아동노동착취, 성적학대 등 현대 노예제에 대한 소개와 유엔 각종 전문기구등의 노예제 철폐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소개.

☐ Civil and Political Rights:The Human Rights Committee/Fact Sheet No.15(시민·정치적 권리: 인권위원회)

UN/37쪽/P/1991/EN

☐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Fact Sheet No.19(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민기구)

UN/16쪽/P/1993/EN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로 이루어지는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설명

☐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Fact Sheet No.21(주거권)

UN/51쪽/P/1992/EN